

靈 寶

1991~1992

全州文化院

(公報處 登錄番號 第 ㄇ-962號 登錄日字 1981.8.10 郵便番號 560-020 隔月發行)

地域文化・地域人情・地域情報

螢 讀

62

1992年 7月

特別企劃：全羅時調文學會 特輯



☐ 全北地方 文化暢達위한 綜合誌 ☐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 編 · 輯 · 後 · 記

回...시 특집을 엮었다. 귀한 작품을 보내주신 전라시조문학회에 감사 드린다. 아울러 지난 5월중순에 개설했던 청소년 문화마당에 참여해 주신 시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린다.

시조 특선과 청소년 문화마당 낭독시 그리고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쓴 작품들을 엮고보니 유명무명의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였다. 썩 좋은 기획이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특집을 기획하겠다.

回...종합지 노령에서 신설한 노령신인시단이 작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점차 수준이 높아져 기성시인으로서의 손색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다음호부터는 중견 여류시인 김용옥씨에게도 의뢰를 했다. 기대한다.

回...유송국씨의 구라파 여행기를 연재한다. 의사이며 문필가인 만큼 흥미를 돋궂줄 것이다. <宋>

蘆嶺

第62號

92年 7月 非賣品

印刷 · 1992年 7月 6日

發行 · 1992年 7月 10日

發行人	金	光	鎬
編輯人	張	明	洙
主 幹	宋	榮	相
編 輯	柳	章	友
印 刷	咸		清

公報處登錄 마-962號

登錄日 1981年 8月 10日

發 行 社團法人 全 州 文 化 院

560-020 全州市 完山區 慶園洞 1街 58의 4 ☎ 88-7500

印 刷 鮮 明 出 版 社 ☎ 84-0030, 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합니다.



蘆嶺

第62號

1992年 7月 10日

特別企劃

全羅時調文學會 特輯

- | | | | |
|----------|----------|----------|----------|
| 8 / 조병희 | 9 / 박병순 | 10 / 黃希榮 | 11 / 李基班 |
| 12 / 蘇在筍 | 14 / 권진희 | 15 / 金鍾安 | 16 / 이동륜 |
| 17 / 申順愛 | 18 / 景 鐵 | 19 / 柳輝相 | 20 / 朴富山 |
| 21 / 정순량 | 22 / 유승식 | 23 / 고원곤 | 24 / 김수자 |
| 25 / 전원범 | 26 / 이동희 | 28 / 김정희 | 30 / 鄭輝立 |
| 31 / 김수엽 | 32 / 장 욱 | 34 / 이재천 | 35 / 이종현 |
| 36 / 이요섭 | | | |

'92 청소년 문화마당

자작시 낭송의 밤 특선

- | | | | |
|----------|----------|----------|----------|
| 37 / 이세일 | 38 / 진동규 | 39 / 안 도 | 40 / 김기홍 |
| 42 / 정희수 | 43 / 김용욱 | 44 / 황영순 | 46 / 조미애 |
| 47 / 진영미 | 48 / 이용철 | 49 / 박동진 | 50 / 이승현 |
| 51 / 김명훈 | 52 / 김현중 | 53 / 오은아 | 54 / 신재빈 |
| 56 / 홍수연 | 57 / 권미경 | 58 / 신승원 | |

제34회 풍남제「전주시민의 날」행사

9회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대회 특선

- | | | | |
|----------|----------|----------|----------|
| 59 / 양승연 | 60 / 조슬린 | 61 / 김병문 | 62 / 홍지나 |
| 63 / 송기훈 | 64 / 조인아 | 65 / 김지연 | 66 / 이영정 |

67 / 김선중	68 / 홍연일	69 / 김가민	70 / 구인회
71 / 장한별	72 / 온목화	73 / 황은영	74 / 김누리
75 / 김중하	76 / 박현실	77 / 권정현	78 / 김송아
80 / 황진택	81 / 강정현	82 / 박송이	84 / 김성정
86 / 진광영	87 / 김송현	89 / 서현정	91 / 김태영
93 / 황소영	95 / 고영제	96 / 유수진	98 / 김지운
99 / 김 영	100 / 김주현	101 / 박수진	103 / 김수영
104 / 이진호	106 / 안철민	107 / 최진영	108 / 이기훈

李鎬堉 칼럼 / 보리밭 全羅人心
가정의학 알고 생활합시다 /

溫泉 상식 조금

좋은 글귀 풀이 / 齊 人

우리말 우리글 / 작은집

生活과 宗教②① / 종교인의 사명

蘆嶺新人詩壇 / 어머니 外2

畫家가 가본 내고장 山河 / 雪川盤松

유럽 風流紀行 / 柳承國 유럽紀行記①

續「나의 文學 60年」③⑧ /

詩人 金海剛 日記抄

全州風物記②③ / 全州川邊

우리고장 名勝地② / 歷史를 찾아서

편집후기

李鎬堉 · 110

柳承國 · 112

柳豐淵 · 114

崔昌烈 · 115

金榮錫 · 116

최수진 · 118

이방우 · 121

柳承國 · 122

정리·曹圭華 · 128

宋榮相 · 134

丁希秀 · 138

· 142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蘆嶺 58



蘆嶺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蘆嶺 60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蘆嶺 61



보리밥 全羅人心

나이 50대도 중반을 넘어 선 어른세대에게는 이름하여 보리쌀정서(情緒)라고나 할까, 보리에 얽힌 싸아한 감정들이 사뭇 연연하다. 그중에 누구는 보리밭에 얽힌 로맨스를 추억하며 입가에 아리서리한 웃음을 띄울 것도 같고, 더러는 콩보리밥 한사발을 둘러싼 눈물의 사연에 목이 왈작 메일것도 같다. 어쨌거나 지금의 어른세대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을 보리밭·보리쌀·보리밥등을 모두 한 이른바 보리라고 하는 곡식과 함께 올 굶은 베를 짜듯 엮고 섞으며 살아 왔었다. 그래서 보리는 어쩌면 투박한 삼베옷처럼 또 하나 한국의 여름을 상징하는 맥이오 숨결인양 한국인의 삶을 성성하게나마 옷 입히고 안아 주며 함께 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리는 꼭이 설음이오 아픔이오 홀대였다고만은 말하지 못한다. 비록 오늘에 얹어서는 보리를 가난의 대변으로 상응하곤 하지만 보리의 추억에는 그러나 더 많은 웃음과 우정과 사랑의 얘기들이 눈물방울 못지 않게 수 많이 영글어 사람답게 살던 삶의 주변에 널려 있던 것이다.

책보를 어깨 넘어로 돌려 묶고 논밭길로 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꽤거리들은 이제 막 영글기 시작한 풀빛 보리목을 주인 몰래 따다가 도둑불로 구어 먹는 보리타작으로 소년기의 영양을 의지 했었다. 마주 보는 얼굴들이 서로의 까만 입술연지를 훑 보며 깔깔 대던 추억을 어찌 잊으랴.

모 심을 적이면 아낙네들이 광주리에 담아 내는 셋거리며 특히 한낮의 점심이 기운을 돋구었다. 반찬이 뭐 있었겠는가, 산당이 처



〈全州大學校 教授〉

럼 고봉으로 담은 시커먼 콩보리밥을 중심으로 된장·고추장에 열무김치 풋고추와 거기 어찌다 계란찌개라도 곁들렸으면 수라상이렸다. 혹 지나는 길손이라도 있을 적이면 굳이 붙잡아 한술이라도 나눠 먹이려던 인심이기도 했다.

밤이면 마당에서 풀다발 모닥불로 모기 막으며 투덕투덕 손부채질이 밤애기를 반주했었다. 그때의 밥상에도 밥은 오로지 콩보리밥. 그것을 찬물에 왕창 부어 말아서 파란 풋고추로 듬뿍 된장을 찍어 먹었다. 아니면 푹푹한 열무김치에 고추장으로 버무린게 매워서 냉수로 달래야만 했었다. 그래도 끓일 줄 모르던 정답들은 웃음으로 노래로 담을 넘어 이웃들과 어울리며 마을로 퍼져 교향악을 이루었으니, 어찌면 보리밥이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던 시절의 가장 인간다운 애정의 곡식이었지 싶다.

물론 보리밥에 얹힌 눈물의 사연도 외면할 수는 없다. 6.25는 그 가장 처절한 통곡의 장이기도 하다. 어렵게 얻어온 한사발의 콩보리밥을 자식들에게만 몇술씩 나눠먹인 뒤 빈그릇 마주 보며 눈물 적시던 피난민 부부. 반대로 온 식구의 보리밥그릇을 덜어 한그릇 챙겨 주고 보낸 뒤, 제밥 빼앗긴 아이들의 울음을 달래며 미안해 하던 「전라도 어머니」의 젖은 눈섭도 가슴을 저리게 한다.

전라도 인심은 그렇게 피난민을 챙겨주고 함께 했던만 그것을 보리밥인양 이제금 배은망덕하는 수혜자들은 행여 없는지. 곳곳에서 6.25를 상기하는 보리밥 행사가 있다기에 문득 생각이 나서 보리밥 씹으며 되돌아 본다. 蘆嶺